



사진제공 · 강화구

정보

도서

나의 독서와 서재

## 리더는 리더다

말겨 주신 양들에게 좋은 것을 잘 먹이는 목회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제일의 방법이 독서임을 의심치 않는다. 강단 위의 설교자로서나 삶 속에서의 목양자로서나 늘 성도들을 위한 양질의 내어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내면의 채움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건강한 독서로 세상을 읽어내어 좀 더 넓은 지경으로 성도들을 이끄는 나의 독서법을 소개한다.

강화구 목사

fyc1896.org  
hgk90@hotmail.com

제일영도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고신대학교 구약학 외래교수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성경 내러티브 읽기」 등이 있다.

**목**회자는 끊임없이 생산하는 사람이다.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가르친다. 예상치 않은 질문이나, 심지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성경책을 펴들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순간도 온다. 하지만 목회자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언젠가는 더 이상 내어놓을 수 없는 순간이 온다. 하지만 이미 여러 경험치를 장착했기에, 다 말라 버린 샘물을 효과적으로 숨기고, 마치 무언가 더 가지고 있는 척한다. 그때그때를 잘 넘기는 듯하지만, 결국 목회자 자신도 말라 간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먼저 알아챈다. 이제 청중이 알아채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내어놓아야 하는 목회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 적어도 내어놓는 것보다는 집어넣는 것이 더 많아야 한다. 이 지점에서 독서의 역할이 주어진다.

## 리더(Leader)는 리더(Reader)다

독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나를 채워야, 내어놓을 수 있다. 자명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리더는 열심히 읽어야 한다. 적어도 목회자에게 있어서 독서만큼 더 풍요롭게 자신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 주로 오전 시간을 중심으로 책을 읽는다. 일주일에 두 권 정도는 읽는다. 대략적으로 스킵하면서 읽는 책을 포함하면 조금 더 된다. 그래봐야 평생 읽을 수 있는 책은 턱도 없이 부족하다. 일주일에 두 권씩 읽어도 일 년이면 1백2권, 10년이면 1천20권에 불과하다. 매년 출판되는 책이 6만5천 권을 넘으니 독서량은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어차피 모든 책을 읽고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면, 전략을 가지고 책을 읽어야 한다. 좋은 책은 가끔 막힌 길을 활짝 열어 주기도 한다. 설교 준비가 막막해 있을 때, 독서를 통해 굉장한 방향 전환을 하게 되고, 순식간에 설교의 아우트라인과 전개가 정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한다. 신학 분과나 목회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올바르게 설교하기 위해 독서는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 나의 독서법 네 가지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독서는 성경 읽기다. 성경은 다독과 정독을 병행한다. 하지만 정독에 훨씬 더 무게를 둔다. 하루에 5-6절 정도를 원문으로 읽고 해석하고, 여러 역본을 살펴본다. 조금씩이지만 지속적인 읽기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두 번째 독서는 신앙 서적 읽기다. 표현하자면, 거룩한 독서다. 신앙 서적 독서도 현대의 학문적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읽는 책과, 설교와 경건생활을 위한 읽기, 그리고 월간지 읽기로 나뉜다. 월간지만 해도 몇백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매월 읽어 내기가 쉽지 않다. 필자는 「월간목회」를 비롯해서, 교단 월간지와 다른 월간지 3-4권 정도를 매월 본다. 현실의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목회가 바빠기 때문에 무거운 책을 읽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스스로의 발전이 결국 목회를 풍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필자는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보는 편이다. 일주일에 두 권 정도 읽고 있지만, 현재 동시에 읽고 있는 책은 10권이 넘는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읽는 책의 종류도 다양하다. 집에서도, 서재에서도, 차 안에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책은 언제나 가까이 있다.

세 번째 독서의 전략은 이북(e-book)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북은 독서 접근성을 비약적으로 좋게 했다. 필자의 경우 실제 종이책보다 이북을 두 배 이상 보유하고 있다. 유학 시절부터 사용했던 Logos 성경 프로그램은 논문을 마무리하는 데 아주 중요하고,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책에 접근하여 설교 준비와 강의 준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 외에도 킨들(Kindle), 구글(Google) 등을 이용한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이젠 사전이나 레퍼런스, 주석 등은 책으로 구입할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네 번째는 일반 도서와 신문 읽기다. 굳이 표현한다면 '세상 읽기'다. 일반 도서는 따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대신 출판사의 이북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신간을 살펴보고 읽기도 한다. 요즘은 핸드폰 앱이나 리더기를 통해 읽어주기까지 하니 가벼운 책들은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다. 신문의 경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읽지는 않는다. 인터넷 뉴스가 더 접근이 쉽

## 독서는 꺼내고 꺼내도 바닥나지 않는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책 속에서 내가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여행하기도 하고, 존경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기도 한다. 그렇게 독서는 제한된 곳에서 살아가는 목회자들에게 더 넓은 세상으로 가는 문이다. 그리고 그 넓은 세상으로 성도들을 인도해야 한다. 그래서 리더(Reader)가 리더(Leader)다.

강화구 목사 | 월간목회 2023년 5월호

는 하지만, 항상 종이 신문을 받아서 아침마다 검토한다. 설교나 기도회 인도 중에 현실적인 뉴스나 통계는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 독서를 위한 제안

목회는 바쁘다. 정말 바쁘다. 시간이 흐른다고 쉬워지는 일도 아니다. 더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독서는 목회자 자신의 우선순위 세움과 끊임없는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선 교회의 목양실을 서재라고 불러 보자. 어떤 이는 사무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목양실이라고, 어떤 이는 당회장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당회장은 당회를 인도할 때만 그렇고, 대부분의 목양은 목양실 밖에서 이뤄진다. 사무실은 최악이다. 이제부터 서재라고 불러 보자.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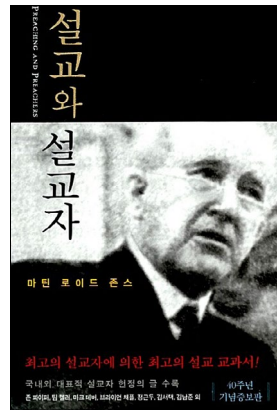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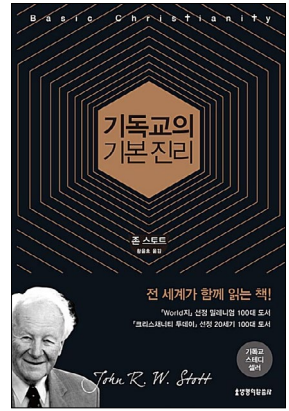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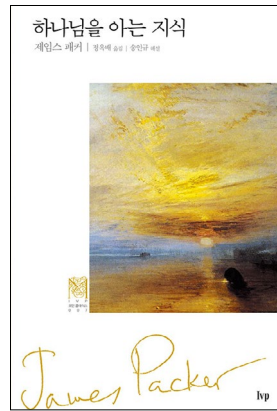
둘째,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 보자. 오전 시간은 특별한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독서에 집중해 보자. 교인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 목회자가 책을 보고 있으면 교인들이 목사님이 한가하다고 생각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가장 치열하게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독서다. 혹 가능하다면 주기적으로 독서를 위해 며칠의 시간을 내어서 온전히 집중하는 것도 좋다. 무겁고 두꺼운 책들은 이때 읽기 좋다.

셋째, 매월 일정한 재정을 우선 배정하자. 빠듯한 살림살이로 재정이 남으면 책을 구입하겠다고 마음을 먹다 보면, 결국 도서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교회가 목회자의 연구비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도서비 지출을 일정하게 먼저 지출하는 것이 선순환을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이때 기억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어렵게 책을 구입했는데,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책이 있기도 하다. 우선 전혀 얻을 게 없는 책은 없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책 구입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 때론 1백 권을 구입했을 때보다 더 놀라운 값어치를 하는 책도 있을 테니 말이다. 둘째, 이전에 구입한 책을 다 읽은 후에 책을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지 말라. 누군가가 그랬다. 책은 읽기 위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꽂아두기 위해 구입하는 것이라고.





사진제공: 강화구



꼭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서재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미 그 값어치를 하는 것이다.

마지막 넷째, 함께 독서할 수 있는 친구들, 지역 목회자들과의 만남을 적극 만들어 보자. 시간 만드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독서하고, 생각을 나누고, 섬이 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 영향을 주었던 책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들은 언제나 많이 있어왔다.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존 스토틀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설교자」 등은 오래되었지만, 필자의 삶에 영향을 준 최고의 책들이다. 하지만 최근의 책들 중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목회나 연구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준 책을 따로 추천하고 싶다. 가장 먼저 로버트 알터의 「성서의 이야기 기술」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필자의 학위 연구를 시작하게 한 책이고, 필자가 미국과 한국에서 출판한 세 권의 책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내러티브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입문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책이다. 둘째, 케빈 밴후저와 오언 스트래헌의 「목회자란 무엇인가」다. 유학 시절 들었던 케빈 밴후저의 수업은 놀라운 경험이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신학자가 아닌 목회자의 길을 걷는 필자에게 그는 이 책을 통해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담아 주었다. 세 번째 책은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다. 목회자는 밖으로 더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길으로는 합당한 복음적 가치로 포장하는 데 익숙할 수 있다. 팀 켈러의 이 책은 어쩌면 위선적일 수도 있는 목회자로 살아가기 쉬운 필자의 폐부를 찌르는 듯했다.

독서는 꺼내고 꺼내도 바닥나지 않는 보물 창고와 같다. 책 속에서 내가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여행하기도 하고, 존경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기도 한다. 그렇게 독서는 제한된 곳에서 살아가는 목회자들에게 더 넓은 세상으로 가는 문이다. 그리고 그 넓은 세상으로 성도들을 인도해야 한다. 그래서 리더(Reader)가 리더(Leader)다. ⑥